

2023. 5. 23. 09:00
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유관기관 토론회

모두 발언



서울남부지방검찰청

I

반갑습니다.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검사입니다.

먼저 오늘 유관기관 간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, 김주현 금융위원장님,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,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참석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II

작년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한 이래, 많은 사건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.

무자본M&A, 기업사냥꾼, CB 찍어내는 공장, 금융브로커, 리딩방, 부실펀드판매·운용, 가상자산 사기 등 그 유형은 너무나 다양하였습니다만,

결국 피해자는 소박한 기대에 부풀어, 주식이나 코인을 사고 펀드에 가입하는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인 국민들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

III

특히 금번 주가폭락 사태는 그동안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'장기투자·가치투자의 영역' 까지 소위 '꾼'들의 무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.

이제 안전지대를 찾기 어려워진 자본시장의 범죄는, 마치 범죄매뉴얼이 있는 양 고도화·전문화·체계적으로 행해지고 있고, 범죄가 세상에 노출되었을 때의 증거인멸의 속도는 빛의 속도에 버금가고 있습니다.

이제는 자본시장범죄 대응에도 '골든타임'이 분명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.

‘골든타임’내에 금융감독당국과 수사당국이
긴밀히 대응·협력해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지
못한다면, 나중에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더라도
해당 사건은 실체진실이 규명되지 못한 채, 검찰청
캐비닛에 고스란히 쌓이거나 기소된다 하더라도
무죄가 선고되어 오히려 면죄부만 부여하게 될
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현실입니다.

그동안 금융위·금감원·거래소의 헌신적인 노력과
협업이 있어왔습니다만, 이제는 ‘골든타임’을
지킬 수 있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·증권범죄
대응 시스템을 확립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

검찰로서도 보다 신속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
통해 ‘골든타임’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
다하겠습니다.

또한 ‘골든타임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사전
준비나 대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.

정보가 쌓이면 지식이 되고, 지식이 쌓이면 지혜가 도출된다는 말이 있습니다.

사건마다 중복해서 등장하는 인물들, 복잡한 듯 보이지만 한곳으로 합쳐지는 돈의 흐름, 다른 듯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보면 결국 동일한 유형의 사건들, 이러한 정보들을 기관 간 피드백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분석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도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IV

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관통하는 일관된 원칙은 ‘이익형량’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.

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범집행에서 더 나아가,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여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.

오늘은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정식직제화되는 날입니다.

아직 여러모로 부족합니다만 국민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, 검사와 수사관, 실무관님들이 파견나오신 금융위·금감원·거래소·국세청·예금보험공사·예탁결제원의 금융전문가분들과 주말도 없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

V

남부지검은 앞으로도 금융증권범죄 중점청으로서 건전한 자본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라는 책무를 다하여, 기업과 선량한 투자자 모두가 WIN-WIN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2023. 5. 23.

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양 석 조